

종합·해설

야권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경선

‘여론 대 조직’ 싸움 압축

박원순, 여론·배심원단 우위... 박영선, 조직력 기반 추격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야권의 후보단일화 경선은 ‘여론과 조직의 싸움’으로 압축되고 있다. 야권이 큰 가닥에서 합의한 후보단일화 경선 틀은 여론조사 30%, TV 토론 이후 배심원단 투표 30%, 국민참여경선 4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지은 상태.

배심원단 투표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TV 토론을 시청한 뒤 미리 선정한 배심원단을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이지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성격이 강하다. 배심원단의 성향도 진보 측에 가까워 박원순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후보가 TV토론에 상당한 감정을 갖고 있는 만큼 3차례로 예상되는 토론 과정에서 격차가 크게 줄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민참여경선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날까지도 경선 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정도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중적 지지기반을 토대로 대역전극을 연출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시민사회는 상당

한 경계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어렵사리 선거인단 신청을 받아 3만명의 선거인단을 추려내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선거인단 명부 열람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사회는 명부가 공개될 경우 민주당이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인단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선거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제8회 추석의 7080 총장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강운대 광주시장과 손을 맞잡고 환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실제로 박 후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은 물론 여야를 통틀어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다만 다른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박영선 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며 ‘뒷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민주당 경선이라는 ‘컨벤션효과’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박영선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박원순 후보는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신상 의혹은 오히려 진실 증명”

흠피 통해 재산·부인 사업·후원금 의혹 적극 해명

야권 시민후보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단일화 경선에 나선 박원순 후보는 27일 재산, 부인의 사업, 후원금 등 자신의 신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시민운동에 투신한 뒤로는 집을 보유한 적이 없다”며 “물론 서민들의 시각에서는 결코 ‘쌌’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과거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로 살다가 시민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재산을 시민운동단체에 쾌척했고 현재 소득의 대부분도 기부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아름다운가게, 현대모비스 등 각종 대형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강씨는 3년간 교육과 2년간 프리랜서 활동을 거친 후 2000년 7월 ‘P&P 디자인’을 설립했다”며 “아름다운 가게 130여개 매장 중 초창기 18개 매장의 공사를 맡았는데 당시 이익이 박하고 결제조건이 열악해 디자인업에에는 폭탄이나 다름없는 것을 옮겨 가져가기식으로 떠맡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30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나라당 대표가 공식 방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표, 개성공단 방문 한나라당 대표론 처음

홍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30일 개성공단을 실무방문한다”면서 “지난 7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방문 용의를 밝힌 뒤 지난 22일 통일부장관과 협의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의사를 타진했고, 오늘 오후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이 와 방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방문에는 홍 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당 대변인과 이범래 대표 비서실장, 김관현 부실장장과 신유섭 비서관이 참여하고, 통일부 관계자 4명이 안내를 맡는다.

/연협뉴스

또 강남 압구정동에 또 하나의 전세아파트가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가 인테리어 디자인회사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서 등록된 예전 주소가 등기 이후 변경되지 않아 불거진 헛소리”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 측은 배우자 강남의 씨가 건축 전공자가 아님에도 인테리어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며 아름다운재단,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MB측근비리 의혹 총공세

주승용 정책부위원장 “권력형 비리개입 폭발 일보직전”

민주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총공세의 고삐를 계속 당겼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측근비리는 ▲부산저축은행 ▲자원개발 ▲SLS 그룹 ▲박연차 게이트 등이 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신문만 펴면 권력형 비리 뉴스가 나오는데 언제 것인지, 이 사람들이 처벌이 됐는지, 기소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비리 의혹이) 일어나 MB정부의 M은 Multiply(증가시키다)의 M이고 B는 비리의 B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국철 SLS 회장의 대통령 측근 급품·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신재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관련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상이 알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를 놓고선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난 사람을 전부 공개하면 어떤 로비가 이뤄졌고 무슨 흑막이 있나 알 수 있다”며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대검찰청 중수부 국정감사 때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를 놓고선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난 사람을 전부 공개하면 어떤 로비가 이뤄졌고 무슨 흑막이 있나 알 수 있다”며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대검찰청 중수부 국정감사 때 물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엄격히 다뤄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밝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달라. (친인척·측근비리)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같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달라. (친인척·측근비리)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측근비리)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공직생활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 내각이나 청와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

같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이현동 국제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총리실장, 정진영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모여 최근 일어났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문일 한나라 전남도당위원장 취임**  
“사회지도층 인사 영입, 총선·대선 총력”



김문일 신임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사에서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당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직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위원장 선거로 야기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공석인 순천, 나주·화순, 장성·영광·함평 등 3곳의 당협위원장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당원 증원 운동에 나서겠다”며 “1차로 6000명, 2차로 1만 명의 당원을 모을 것이며, 특히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영입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 경제발전을 위해 전남도지사과 도 간부, 당 대표와 장관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전남도와 중앙당을 연계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양 지역의 학생교원과 스포츠·문화 교류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공석이었던 순천당협 위원장에는 김보섭, 나주·화순 당협위원장에 문준안, 장성·영광·함평 당협위원장에 장희정 씨가 선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지연복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순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지,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94,800평, 건축을 있을, 매매가 13억원
- ▶중주거지역 (병원, 시육, 임대용상가건축수익부지적합) 화정동, 광산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포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평주공원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판공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임대 전문**

**학원·병원**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 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062)961-337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건설팀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일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4억8천만 최저가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4억2천만 최저가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223평 건평28평 감정가2억4천만 최저가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4억5천만 최저가3억1천만

**상가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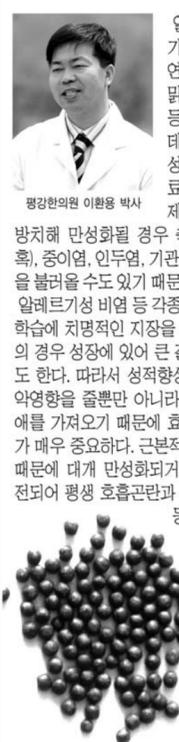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34평 건평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창리 입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문면 고창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격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곤란해지면 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한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동이다. 이 유근피동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다.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한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한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90204-종-4738호